

광주 도심 불법현수막에 '몸살'

광주 도심 곳곳이 아파트 분양과 주택 조합원 모집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북구 중흥삼거리. 구청이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를 옆에 두고 건설사와 분양업체의 현수막 13개가 가로수 사이에 빼곡히 내걸려 있었다.

이 현수막들은 "최저가, 임차수의 평생보장 2배 오르는 기회" 등 현혹적인 문구로 가득했다.

같은 날 광주 서방사거리 전신주 사이에도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횡단보도의 적신호를 가리고 있었고 전봇대·가로수에 묶인 쇼팽백에는 분양 홍보 전단이 가득했다.

14일 광주 일선 5개구 등에 따르면 아파트 미분양이 늘었던 지난 2015년부터 광주 도심의 불법 현수막이 급증했다.

동구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액은 2014년 1674만원에서 2015년 2억7712만원, 2016년 2억1779만원, 2017년 1802건 4억4312만원을 기록했다.

서구도 2014년 2억2213만원, 2015년 9억6390만원, 2016년 15억6185만원, 2017년 10억7322만원을 부과했다.

남구의 부과액도 2014년 9878만원, 2015년 2억508만원, 2016년 14억4420만원, 2017년 12억7121만원이다.

북구와 광산구도 2014년 1억~3억대의 과태료 부과액이 2015년들어 11억~14억으로 폭증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70억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 건수도 급증했다. 서구(2016년 18만5188개→2017년 28만9258개), 북구(17만326개→24만7065개), 광산구(12만개→15만개) 등을 기록했다.

수거된 현수막의 80~90% 가량은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조합원 모집 광고물로, 2015년부터 지역 아파트 공급과 미분양이 늘면서 이 같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자치구는 분석했다.

불법 현수막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른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제개발 최대 수혜 지역, 마지막 800만원대, 1억원에 오피스텔 2채 구입 가능 등 현혹적인 문구나 허위 광고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잦다.

또 주말마다 내걸고 평일에는 떼는 게릴라성 현수막, 전봇대·가로수에 묶은 쇼팽백에 홍보 전단을 날아두는 경우, 전광판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한 불법 홍보, 아르바이트생

아파트 분양·조합원 모집 다수, 광고효과 노려

도시미관·안전 저해...각종 편법 단속 역부족

이 직접 현수막을 들고 서있는 경우 등 분양 수익을 올리기 위한 각종 편법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 일선 구청들이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건설사·분양업체 등지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수막 도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태료 부담보다 현수막 광고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모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현수막 부착은 단기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아무리 많은 현수막을 붙여도 한 번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 현수막 부착 대행 업체의 난립, 단속 인력 부족 등도 부착·수거·재부

착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배경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 주택조합은 시공예정사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고 건설사는 용역업체에 현수막 부착을 맡기는 실정"이라며 "현수막을 부착한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적발시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배짱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이어 "수익만 쫓는 아파트 시공·분양대행 업체, 주택조합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며 "단속 인력 충원 및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미소짓는 눈 그림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 절기를 일주일 앞둔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서 누군가가 자동차 앞 유리에 소복이 쌓인 눈에 그림을 그려놓아 지나가는 시민이 웃는다.

광주고법, 치료 불만 종합병원 방화미수 50대 집행유예

치료 등에 불만을 품고 종합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은 A(57)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대상인 병원 측에서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검사

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46분께 전남의 한 종합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수기 1회용 종이컵과 종이컵 분리수거기를 한 곳에 모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가 하면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과 소화기 방침대에도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방화는 같은 날 오후 10시52분께 해당 병원에서 공사 중이던 한 근로자에게 목격돼 미수에 그쳤다.

앞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A 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와 함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

다. 1심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종합병원은 거동이 어려운 다수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어 방화로 인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단 "치료 뒤 3차례나 다시 병원을 찾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방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주춘정 기자

영국 고양이 윈스턴, 15년 만에 '집으로'

15년 만에 가족을 찾아 집에 돌아온 영국 고양이 '윈스턴'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윈스턴을 다시 만난 재닛 반스 부인은 최근 텔레그래프에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밝혔다. 1살 때부터 반스 부인과 함께 한 윈스턴은 17살 노모가 돼 돌아왔다.

그는 "지난 몇년 간 윈스턴이 어디에 있었는지 짐작도 못했다"며 "탁연히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길에서 비틀거리며 살던 윈스턴이 구조됐을 때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콘월주(州)의 세인트 오스텔에 소재한 반스 부부의 집을 나간 윈스턴은 최근 35마일(약 56km) 떨어진 콘서스턴에서 발견됐다. 윈스턴을 구조한 캐슬수의사그룹은 윈스턴의 몸에 이식된 마이크로칩을 통해 주인을 추적했다.

반스 부인은 "막 구조됐을 때 윈스턴의 털은 바짝 말라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며 "윈스턴이 마이크로칩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추적할 수 있었다는 게 행운"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칩이 윈스턴의 생명을 구했다"며 "집이 없었다면 늙고 병든 고양이 윈스턴은 품짝없이 인타사를 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슬수의사그룹은 "우리는 주기적으로 유기동물들을 구조하지만 윈스턴 만큼 주인과 오래 떨어져 있었던 동물은 처음"이라며 "윈스턴이 어떻게 세인트 오스텔에서 콘서스턴까지 여행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이는 비용도 높지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잃어버린 반려동물과 재회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 남성, 자식 위해 홀로 8km 산길 뒀어

말그대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지극한 마음이 8km에 달하는 길을 만들어냈다.

인도 동부 오디샤주의 한 남성이 곡괭이 한 자루와 망치, 풀 쇠지렛대만으로 지난 2년 간 8km에 이르는 도로를 뒀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5살의 살만드하 나야크라는 이 남성은 학교에 다니는 세 아들이 좀더 자주 그리고 편하게 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일에 매달렸다.

나야크가 살고 있는 굽사히 마을과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풀바니 마을은 약 15km 떨어져 있지만 교통편도 없어 산길로 걸어야 하면 어른이라도 최소 3시간 넘게 걸린다. 사실상 아이들로서는 통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나야크의 아이들은 주중에는 학교가 있는 풀바니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이나 명절 등에만 굽사히 마을로 부모를 만나러 왔다.

나야크는 아이들과 좀더 자주 만나기 위해 직접 길을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 2년 간 매일 새벽 길을 뒀는 작업에 나섰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야채 행상을 했고 저녁이면 또 다시 길을 뒀는 일에 매달렸다. 망치와 끌로 비위를 부수고 쇠지렛대와 곡괭이로 비위를 치우며 길을 뒀었다. 그렇게 하루 8시간씩 쉬지 않고 일한 끝에 8km에 이르는 도로가 오직 나야크 혼자만의 힘으로 생겼다.

이러한 나야크의 노력은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아 이번달 초 오디샤주의 '뉴스 월드'에 소개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나야크가 길을 뒀는 사연이 전해지자 오디샤주 정부가 나머지 7km의 도로는 주정부에서 완공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필리핀 마운 화산분출...주민 대피 등 조치

필리핀 중부 루손섬 알바이 주에 있는 마운 화산이 화산재 분출을 계속함에 따라 주민 대피와 항공기 우회 운항 조치가 내려졌다고 화산지진연구소가 14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긴급 통지를 통해 마운 화산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더 많은 화산재 분출과 비위 낙하, 산사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보를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화산 경보는 비정상상을 나타내는 1단계에서 '불안정 증가'로 의미하는 2단계로 격상됐다. 마르틴 안다나르 대령령 대변인은 마운 화산 주변에 사는 주민이 언제라도 피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화산 반경 6km 내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은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아직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늦치고 지내, 그래서 잇고 지내 시강등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방생물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양
건강검진

암
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